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외자보험사, 증자로 중국 보험시장 공략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가 발표한 올해 1~7월 수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,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자본의 보험회사들에 비해 여전히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.

-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에서 외자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.88%와 1.03%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-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10년 후에도 시장점유율이 10%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임.

□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보감회가 작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업무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 조치를 추가로 해제하자,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음.

-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중이생명, 도교해상 등 주요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증자를 통한 사세 확장으로 신규업무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임.

중국 보험시장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최근 증자 현황

회사명	금액
중이생명(中意人寿)	19억 위안 → 27억 위안
도교해상(东京海上日动火灾)	2억 위안 → 3억 위안
안타이생명(安泰人寿)	6억 위안 → 7억 위안
하이얼뉴욕생명(海尔纽约人寿)	6.4억 위안 → 8억 위안
신청생명(信诚人寿)	18.2억 위안 → 19.8억 위안

자료 : 경제도보(经济导报) 관련 기사 요약

-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엑센추어가 16개 세계 주요 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 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향후 3년 내에 BRICs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)에 투자 확대 계획이 있다는 48%의 회사들 중 중국을 언급한 경우(36%)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, 증자를 통한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보험시장 진출 확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· 경제도보, 9/9)